

學科評價는 계속되기 바라며

李 大 云

(延世大 化學科)

작년에 이어 금년에는 전국의 64개 대학교의 화학과가 학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개인이나 기관이 남에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덜 된 상황에서, 그것도 대학에 대한 평가는 자연히 찬반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발전을 위해서는 현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이 평가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론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마치 건강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만 막상 진단을 받게 되면 귀찮고, 힘들고, 두려움도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 대학 사회에서도 서서히 평가는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왔다. 작년 11월경 화학과가 93년도에 학과 평가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평가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모든 계획안, 즉 평가문항, 평가기준,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등이 마련되었고 이를 대한화학회에서 위임을 받아 당시 안운선 대한화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진이 구성되어 평가문항의 작성과 평가기준의 개발이 연구되었다. 이어 평가문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는 일련의 회의가 있었으며, 특히 대한화학회 춘계총회 때를 이용하여 학과 평가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있어 열띤 토론도 가

졌다.

다행히 작년의 물리학과와 경험에 있어 평가 받는 측과 평가하는 측 간의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였다. 평가문항에 있어서는 작년의 평가와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6개의 대문항인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행정은 그냥 유지하고 중, 소항목만은 화학과에 맞도록 제조정하였다. 대학간의 변별력을 위해서는 모든 문항이 계량적이 좋으나, 내용으로 볼 때 정성적이어야 하는 문항도 상당수 있게 되었다.

작년의 물리학과와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자체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대학에 주었던 평가기준을 금년에는 주지 않고 평가문항에 따라 각 대학의 현황만을 보고하게 한 점이다. 물론 어느 경우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기준을 미리주는 경우에는 너무 점수를 의식하고 무리하게 짜맞추는 자체평가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대학의 학과 지원이 점수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금년에는 현지방문을 끝내고 평가기준을 학과에 주어 자체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아직도 학과 평가에 대한 완전한 틀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

에 서로 다른 시도를 한 것으로 이해하리라 믿는다. 내년의 학과 평가에서는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좋은 방법이 선택되기 바란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평가문항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절한 평가문항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경험도 시간도 별로 없었다. 무엇을 평가해야 의미가 있고 대학간의 변별력이 분명히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즉, 국제수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것인지 혹은 국내에서의 우열만을 가리느냐인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립과 사립대학, 남녀공학과 여자대학, 종합대학과 이공계 대학, 역사가 길고 짧은 대학간 등의 엄연한 차이점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가 되었으면 하였으나 결국 이번에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한편, 평가기준에서 정성적인 문항은 ABC의 3등급으로, 정량적인 문항은 ABCDE의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간의 가중치는 0.2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성적인 문항에서는 학교별 변별력이 크지 않으리라 예상도 하였다. 따라서 정량적인 문항에서 차이가 있어도 등급의 수가 작은 정성적인 문항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학간의 점수의 차이는 줄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내년에는 이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다행히 내년의 평가 학과가 이미 선정되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문항과 기준을 가지고 서면 및 방문평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덟 반 24명의 평가 교수들이 6월 24~25일 양일간 모여 평가기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워크숍을 가졌다. 두 개의 같은 대항목을 맡은 교수들만이 다시 모여 반별 혹은 평가교수 개인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을 마치고 평가교수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대학의 보고서를 가지고 헤어졌다.

대개 한 교수가 8개 대학의 보고서를 읽고 평가기준에 따라 일단 서면 평가를 하고 미비한 점이나 의문이 나는 부분을 메모한 뒤에 현지를 방문하여 보완 및 확인을 하게 되어 있었다. 약 열

흘간 보고서를 읽었는데, 각 대학에서 이 보고서를 만드느라고 많은 교수들이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종합하고, 자체평을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 평가하기가 더욱 겁이 났다. 틀림없이 평가문항과 싸우면서 원망도 했을 것이고,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학교당국과 임씨름도 했을 것으로 안다. 교수들간의 협력이 잘된 대학도 있고, 학교가 많은 지원을 한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도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대학간에는 차이가 많았다. 각 문항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간단히 요약식으로 쓴 대학도 있었다. 각 항목마다 대개는 표가 따르게 되는데, 작성 요령이 명확하지 않아서였는지는 모르나 요구한 내용과는 다르기도 했다. 한편, 대학내 좋은 자료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교수들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탓도 있는 것 같았다. 보고서 제출 마감기가 가까워서는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래서 병도 난 교수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가교수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평가를 받는 입장이 더 나을텐데 하며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들 고생하며 만든 보고서라고 생각하니 한두번 읽어서는 불안하여 몇번씩 보고 또 확인하였다.

7월 5일부터 16일까지 현지 방문평가가 실시되었다. 나의 경우는 부산 지역부터 시작하여 춘천, 인천, 수원으로 하여 서울에서 끝을 냈다. 물론 강행군이어서 피곤도 했지만 아주 좋은 경험을 하였다.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여러 대학을 그것도 자세히 볼 수가 없으며, 또 동료인 많은 교수를 만날 수가 없다. 단지 우연히 평가교수가 되어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는 하나 서로 대학을 바꾸어 평가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 우연히 감사원 감사가 한창일 때라 행어나 본의 아니게 오해가 없게 하느라고 신경을 썼다. 편안한 마음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듯이 그러나 평가는 제대로 그리고 공정히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학을 방문했다.

아침 9시에 총장실에서 간단한 대학 전체의 안내를 받고, 화학과에 가서 세 분야로 나누어 학과의 해당 교수와 함께 서면 평가에서 미비했던 사항과 경우에 따라서는 확인도 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위 실사를 하였다. 고마운 것은 모든 대학이 준비과정에서는 짜증도 났을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히 대해 주었다. 오히려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모든 자료나 시설을 자세히 보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고진감래라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했지만 평가 덕분에 학과 살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누가 평가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 수 있었고, 험은 들었으나 함께 일하느라고 사이도 좋아졌다고 좋게 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고마웠다. 특히 이번에 시설과 기자재를 많이 확보했거나, 교수를 충원할 수 있었던 대학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반대의 평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임시응변, 전시효과, 일과성 및 일회용 계획 등이 이번 평가에는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현지 방문 평가는 필요도 하였고, 어려움도 있었다. 평가기준은 같아도 실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어느 반은 까다롭게 하였느니, 누구는 너무 심하게 했느니 하는 소문이 돌았다. 평가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무도 평소에 잘 아는 동료 교수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의 이해가 열쇠라고 생각한다. 만일 제3자가 와서 평가한다고 하면 과연 문제가 없을까? 오히려 사정을 잘 아는 동

료가 평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지 방문 평가를 마치고 나서 평가 교수들은 반별 혹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며칠 후 같은 항목을 맡은 교수들이 다시 모여 평가기준을 점검하고 특히 계량적인 항목은 계산방법까지 확인하는 회의를 하고 각자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다시 모여 협의한 일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평가 보고서 제출기간이 8월 말이었다. 후시 조금 늦더라도 이제는 마감되었고 어느 정도 평가의 윤곽이 드러났을 줄 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와 같이 전국의 화학과는 걸음으로는 조용한 것 같다. 아마도 준비에, 실사에 모두 지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 발표가 앞에 있기에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평가를 어떻게 했으며,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발표하느냐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했으며,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저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해 준다면 아마 그보다 고마울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을 점수순위로 한줄로 세워 놓고 점수만이 다인 양 석차를 매긴다면 이것은 평가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일이 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같은 염려는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라며, 지혜롭게 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모두가 의미를 찾고, 모두에게 발전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학과 평가는 계속되고 더 나은 평가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